

한국정치와 불교

민중주의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던가. 어려웠던 시절 슬한 민주투사와 열사들의 희생을 반석으로 한국정치는 발전을 거듭해 왔고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컫는 지방자치시대를 연 지도 어언 10년이 넘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정치에 갈채를 보내는 국민은 별로 없어 보인다. 형식은 발전된 모습을 가졌을 지 몰라도 정치인들의 의식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대통령선거를 두어 달 앞두고 있는 지금도 새로 정당을 만드느라 부산을 떠는 하한 이해탄산에 따라 당을 여러 지리 옮겨 다니는 정권들이 정치를 뒤흔들고 있지 않은가.

어떤 사람은 정치란 본디 성인이 아니면 도둑놈이 하는 것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각설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발전에 우리 불교계에도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본사 주지를 교구의 구성원들이 뽑는다면 중앙총회 의원과 교구 중앙총회 의원들을 탄생시키기 위해 많은 스님들이 다른 스님들을 상대로 출마와 당선 로비를 벌이는 웃지 못할 풍토가 만들어질 것이다.

조금 심하게 이야기 하자면 예전에는 권승들이 극히 일부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자의든 타의든 거의 모든 스님들이 종단정치에 휘말리는 권승의 자리에 남나고 있는 셈이다. 종단의 민주화를 위한 부득이한 제도라고 하니 이해하려 애쓰고자 하지만 쓸쓸한 입맛을 송골수가 없다.

진면목의 출가를 좀처럼 만나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이전 종단 안팎 어디를 가든 어렵지 않게 들은 이야기가 되었다. 우리 불교 교단은 지금 민주화를 통해 발전하고 있는가? 불자들은 긍지를 느끼며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가? 종단의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임버처럼 거론되는 수행 풍토 조성, 포교, 도제 양성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이 글을 보면서 아직도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 있나 하고 비웃을 사람들이 필름처럼 뇌리를 스친다.

도수(정업도량 회주 · 본지 논설위원)

불자의 생각

불교 왜곡 방송

최근 불교를 왜곡하거나 비하하는 방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붓다뉴스, 네티즌 설문조사에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총 응답자 94명 가운데 49명(51%)이 불교에 대한 몰이해, 24명(25%)이 재미위주의 과욕

가타 11.3%, 몰이해 51.6%, 재미위주 25.6%, 지식부족 11.3%

“불교에 대한 몰이해 때문” 51%

편성, 11명(12%)이 각각 심의 절차의 부재와 기타라고 답변했다. 또한 불교 왜곡 비하 방송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질문에는 45명(48%)이 활발한 모니터 활동, 26명(27%)명이 방송 관계자에게 기초자료 배포, 8명(9%)이 방송법 관련 조항 강화, 6명(6%)이 사법적 대응, 9명(10%)이 기타 라고 응답했다.

김두식 기자

불자 세상보기

富 추구보다 빈곤 퇴치 노력을

이 세상에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던 적은 없었다. 오직 인류만이 쉬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 인류의 생물학적 대성공은 이 때문에 인류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생명들의 생물학적 대재앙이기도 하다. 우리의 대성공은 다른 생명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착취한 결과인 것이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죽어 없

엔 생명들을 생각하면, 매일 매시 마 음 속으로 위령재를 올려야 미망하다. 유엔이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라는 것을 정해서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10월 17일은 그것이 제정되고 열 번째 해에 이른 날이다.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맞이해서 보도된 자료들을 보노라면, '풍요사회'의 진정한 실체에 관해 깊은 고민

재를 갖기 위해 원조 받는 금액의 13 배를 선진국으로 보내고 있다. 빌 게이 츠를 비롯한 세계 최고 부자 3명의 재산은 가장 가난한 49개국에 사는 6억 명의 연간 소득보다 많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인류가 대성공을 거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결과를 모든 사람들이 고르게 나누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틀

리만 잘 살려고 하다가는 부유와 빈곤이 맺고 있는 문제를 고칠 수 없다. 부유해지려고 애쓰기보다 빈곤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 '자비'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다. 그 길이어야만 더욱 살기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우리들이 조금만 절약하고, 이웃을 생각한다면 매년 600만 명의 굶어죽는 어린이들의 희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있는 나라들이 조금만 인 간애를 발휘한다면 오늘도 굶주림에 수 해마다 죽어가는 생명체들을 들볼 수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애원동물 보다 못한 인간의 삶에 회한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작금의 인간사다.

본문(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분야별 효율적 포교 방안

연수에서는 향후 각 분야의 특성이해를 통한 포교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어린이 · 청소년, 군, 교도소, 신행 · 직장직능, 자원봉사 · 상담 등 분야별 대안을 정리한다.

교사불자 어린이 포교에 적극 활용

군포교, 지원단체들과 연계 바람직

어린이 · 청소년

어린이포교의 가장 큰 장애는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가 부족하다는 점과 재정적인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때문에 어린이 지도자 육성, 사찰과 신도회의 재정분담 등의 개선이 뒤따라 지 않고서는 어린이포교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력 충원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교사불자를 어린이포교에 적극 가담시키는 방법이다. 불교어린이지도자협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와 교사불자회,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불교교사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인력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사찰과 신도회, 종단 차원의 관심과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영숙 대전총청포교사단 어린이포교팀장

군

군 포교사들은 자기(自費)와 시간을 투자하는 등 많은 부담을 안고 활동하기 때문에 신규포교사들의 지원을 마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활발하고 효과적인 군포교를 위해서는 종단과 인근 사찰의 재정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한 포교와, 군 포교 지원단체와의 연계, 범위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대한 연구 등이 이뤄져야 한다. 또 군신도회의 재정 분담 확대, 신규인력의 군포교활동 의무화, 강원도 지역의 군밀 결성도 시급하다.

강오근 전북포교사단 군포교팀장

교도소

사회와 격리 수용된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에서 포교활동을 펼치는 교도소포교는 인력 재정 부족, 통일된 교재 부재, 출소후 신행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무하다. 이의 개선을 위해 상담, 자원봉사, 홍보포교와 연계하는 법회

김영석 대구경북포교사단 직장직능팀장

자원봉사, 상담

자원봉사와 상담활동은 팀의 뚜렷한 역할, 활동목표, 추진 방향 등 구체적인 실질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팀 조직의 끊임없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팀원들의 적극적인 의지에 달려있다. 피상담자와 봉사현장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소재의 활동영역 개발도 시급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군, 교도소, 어린이회와의 연대활동을 통해 활동영역을 넓히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충분한 현장실습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류재창 서울경기포교사단 상담팀장

富 추구보다 빈곤 퇴치 노력을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인류가 대성공을 거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결과를 모든 사람들이 고르게 나누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한편에서는 개조차 전유물이며 호탈을 드나드는 데, 다른 한편에서는 집어먹을 개조차 없어서 자기 삶을 물어뜯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부유와 빈곤이 한 배에서 나온 일란성 쌍둥이라는 사실에 있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부유는 후진국이라는 나라들의 빈곤과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 어

이렇게 들었다

존엄성 어떠한 것보다 비교 안돼

생명존중

지구촌 곳곳이 폭탄테러로 비상이다. 발리에 이어 20일 필리핀 남부 삼보양가의 로마가톨릭 성당 인근에서 '폭탄 테러'로 보이는 폭발사고가 발생. 적어도 1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이번 사고는 필리핀에서 이달 들어 네 번째 발생한 폭탄 사고로, 지금까지 모두 10명이 숨지고 220여명이 부상했다. 필리핀에서는 또 지난 18일 수도 마닐라에서 새벽과 밤 2차례 폭발 사고가 발생, 2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이스라엘 북부지역에서도 21일 퇴근길에 강력한 차량 폭탄 공격이 발생. 최소한 14명이 숨지고 48명이 부상했다. 이차 경찰과 언론들이 전했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그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지역, 나이, 성별, 종교, 빈부, 피부색을 떠나 더할 나위 없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사람으로 태어나기란 참으로 어렵다. 비유하자면 큰 바다 속에 살고 있는 눈 먼 거북이 백년에 한 번 떠오르는데 마침 구멍이 하나 있는 통나무를 만나서 그 구멍에 머무는 법부가 생사를 순회하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란 눈 먼 거북이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나야 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것은 중생들이 법을 등지고 선을 행하지 않고 진실을 행하지 않으며,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면서 한량없는 악을 지었기 때문이다. <집이향경>

☞자신이 사랑스러운 것을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삼무경전>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일부러 죽여서는 안 된다. 보살은 마땅히 자비심과 효심을 일으켜 번치 않아서 방편으로 생명 있는 것들을 구호해야 한다. <법장경>

☞국토의 평등이 인간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으며, 인간의 평등은 모든 만물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는다. <화엄경>

불로초 스피리나는...

미국 NASA 우주극 건강센터 발견

우주인이 먹는 바로 그 식품

스피리나는 세계 선진 20여개 유명 의과대학 및 연구소에서 쥐나 사람을 임상시험한 결과 각종 성인병 불치병의 예방 및 개선에 탁월한 효능 입증

- ▶ 과음, 숙취, 만성피로 - 양질의 단백질 덩어리면서 그속에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있게 포함 되어 있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함
- ▶ 아간에 일하는 사람 피로가 없음
- ▶ 당뇨 - 낮은 열량을 가진 고단백식품, 아연(Zn)은 인슐린 출분 생산의 중요 역할 - 60일만에 정상혈당 수준으로 회복된 여러사례 보고됨
- ▶ 빈혈 - 혈액속의 적혈구는 골수속에서 단백질과 철분의 결합으로 생산 - 45일만에 빈혈환자들의 적혈구 및 헤모글로빈 수치를 정상화 시켜줌 (동경국립대 의과대학 다케우찌다야교수)
- ▶ 암예방 억제 - 베타카로틴(시금치의 40배)이 체내에서 대서되어 생산되는 레탄산은 암을 예방하거나 개선(파리 생쥐이 병원의 로리보고스 교수팀)
- ▶ 갑상선 페닐알라닌, 라복신, 등 천연출연 함유
- ▶ 심장작용 - 김미타놀렌은 생리활성화 물질인 국소출분 프로스타글리딘을 생산하는 기본물질인 스피리나 1300mg(서울농대 교수 임규용 박사)
- ▶ 골다공증 흡수율 95%이므로 골다공증을 앓아보지(보통음식 소화흡수율 30%이하)
- ▶ 간질환 매치오닌 - 고단백, 고비타민 섭취와 충분한 영양공급이 간세포를 회복시켜주며 스피리나는 데할 수 없는 간의 영양공급원 - 간독수 비배
- ▶ 위산과다 및 위궤양 - 염색소에는 성장세포 촉진제(CCI Cell Croning Factor)가 들어 있어 단시일내 효과 - 15일 이내 속쓰림 없어짐(동경국립대학 야마자키 요시모 박사)
- ▶ 콜레스테롤 정상화 이노시놀 100mg - 염색소에는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역할, 1.6% 염색소 함유 (고려대학교 유대중 박사의 식품보급)
- ▶ 심장병(염색소 다량 함유)

김완수 박사

국내 유명 대학교 저명 교수들이 추천한 자료와 제품을 먼저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처 : 055-247-0919 / 080-700-0881

전립선염비대증

소변 줄기가 시원하게 나오며 천연 자연 생약이라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으며, 자신감이 생깁니다.

※ 40세 이후 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전노, 빈노, 야뇨, 소변후 불쾌감에서 해탈될 수 있는 획기적인 천연자연생약

극제 전립선 비대증 자가 진단

- 1 평소 소변을 볼때 다 보았는데도 소변이 남아 있는것 같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 2 평소 소변을 보고난 후 2시간 이내 다시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 3 평소 소변을 볼때 소변 줄기가 끊어져서 다시 힘주어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 4 평소 소변을 볼때 참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까
- 5 평소 소변줄기가 약하거나 가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 6 평소 소변을 볼때 소변이 금방 나오지 않아서 아랫배에 힘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7 평소 잠을 자다가(특히 야간에) 소변을 보는 경우가 하루 밤에 몇번 있습니까

●문의처 : 055-247-0919 / 080-700-0881

원리를 아는자 미래를 지배한다

피부와 체형을 보고 정확한 건강, 미용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원리적인 기법을 공개 습득케하여 몸과 마음이, 자연과 사람이 절대 틀어 아니며 하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자신의 건강, 미용은 물론 상대와의 조화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인성이 좋은 직업전환, 창업자를 찾습니다.

수암 프랜차이즈점 행정구역별 모집 (소규모 창업)

◆ 수암 프랜차이즈 종류 ◆

- 수암 아카데미 - 음양체질 관리자, 두피관리사 교육기관
- 수암 갤러리 - 코스메틱(화장품), 관리
- 수암 SB 갤러리 - 두피건강
- 수암 관광 갤러리 - 외화획득

수암 선생의 오감만족 기열순환 마사지 '열기향영' 케이블 옥아 TV. 10/7 - 11/30 40회분 방영(1회 30분 방영)

방송시간 안내

오전 10시 30분(본방) 오후 3시 30분(재방)
 새벽 2시 15분(재방) 오후 9시 25분(재방)

음양피부체형연구회(주)

연락처 02-582-1069, 3487-1069
 http://www.suarm.com